

자동차 관세 10% 유력...“현대차·기아 영업익 4.3조 감소”

미국, EU와 동맹 부과할 듯...국가 차원 협의체·현지파트너십 중요 정부 반도체·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올해 투자 119조원으로 늘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검토 발언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 자동차 관세 현실화 시 미국 수출 비중이 큰 현대차그룹과 한국 GM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여파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국가 차원의 협의체와 현지업체와의 적극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

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평균 수입 가격에서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 가격 비율은 0.8로, 이는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자동차 평균 가격보다 한국에서 수출된 자동차 가격이 낮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900만달러로, 이중 대미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로 비중이 49.1%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유럽연합(EU)은 미국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반면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만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EU산 자동차에 동물의 10%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현대차·기아와 한국GM의 차장은 현지 가격이 올라 판매 감소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기준 현대차·기아와 한국GM의 미국 수출량은 각각 97만대, 41만대기량이다. KB증권은 최근 내놓은 리포트에서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이 각각 1조2000억원,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관세 20% 부과 시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이 최대 19% 줄어들 리스크가 있다고 전망했다.

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10대 제조업에 지난해보다 7% 증가한 119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산업투자전략 회의를 열고 10대 제조업 투자 실적 및 계획을 점검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석유화학·정유, 철강, 바이오, 조선, 기계·로봇, 섬유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전남정보문화진흥원, 라오스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본격화

지역 IT·SW기업 글로벌 진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역 IT/SW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추진한 '라오스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2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남 IT 기업 에스엠소프트는 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관광 선진화 사업에 참여한 나콘그룹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에스엠소프트는 이번 라오스 관광 정보 선진화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참여 기업으로,

2025년부터 2년간 라오스 주요 호텔과 숙박시설에 130만 달러 규모의 집적 정보관리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이다.

에스엠소프트는 전남 혁신도시에 위치한 19년 차 IT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에너지, 조선, 무인항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 전남 지역 IT 기업으로서 전남도와 진흥원이 주관하는 'ICT 융복합 지역 개발 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라오스 관광산업의 데이터 기반 시스템 개발과 ICT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라오스 프로젝트는 지역 IT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에스엠소프트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현지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전남 지역 IT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국가로의 진출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용 진흥원장은 “이 프로젝트는 전남 IT 기업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과 경쟁력을 입증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I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동수 광주세관장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방문

“수입 신속 통관 등 관세행정 지원”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이 12일 광주 광산구 첨단단지 소재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를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사진>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첨단 핵심 산업인 반도체 시장의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최근 미국 세 정부의 반도체 통상 정책 방향에 따른 불확실성 우려 속에 관세 행정상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는 광주, 인천 송도, 경기 부평 3개 사업장에서 반도체 패키징을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 지난해 광주세관 통관 기준 광주 지역 수출 비중의 약 35%를 차지하는 지역 중추 기업이다.

김 세관장은 이날 “격화되는 반도체 산업의 대외적인 경쟁과 각국 무역정책 변화 속에서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입 원자재 신속 통관과 규제개선 등 관세 행정지원을 적극 실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첨단산단 에너지 생산·저장·활용 거점 문 열었다

지능분산에너지 공동연구센터 개소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가 12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단형 지능분산에너지 기업공동연구활용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산단형 지능분산에너지 기업공동연구활용센터는 산단공 광주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일환인 지역특성화(소부장) 사업의 주요 성과물이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단지 내에서 에너지 생산·저장·활용에 필요한 분산에너지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구축됐다.

연면적 1828㎡ 규모의 센터는 분산에너지 소재·부품 생산에 필요한 ‘형광드 BIPV스트림 제조장비’ 등 35종의 신규 연구장비가 설치됐으며, 산단 내 기업들이 연구 및 실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센터 구축사업 주관기관인 생가원은 에너지 기업의 지능분산에너지 기술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하고 광주첨단 스마트그린산단의 에너지 자립화



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윤장배 한국산업단지공단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이번 센터 개소가 산단 내 다양한 기업들이 첨단

인프라와 장비를 활용하고 지능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든든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 고통 서민의 든든한 버팀목

지난해 274명 270억 채무조정

해남상담소 설치 등 서비스 확대

과다채무의 늪에 빠진 전남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전남도가 설립한 전남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올해 해남에 상담소를 개설한다. 무안 서부센터와 순천 동부센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출장 상담에 나서 등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12일 전남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3699차례의 상담을 통해 274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총 270억원의 채무조정을 성사시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남 금융복지상담센터는 부채로 힘들어하는 전남 도민을 대상으로 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각종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도록 돕고 있다. 이에 따라 원금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한 연장 등을 통해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다.

상담과정에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각종 서류발급 비용을 지원하거나 타 기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도민들께 종합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

하고 있다.

이외에도 센터는 전남사회서비스원과 함께 농촌지역 경로당을 찾아 금융사기 예방 어플 설치를 지원하고, 전남노인회와 협업을 통해 사군노인회 단위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센터는 2016년 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261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2252억원의 채무조정을 성사시켰으며, 643회에 거쳐 2만4000여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금융사기예방, 신용관리요령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삼성전자 AI 기능 강화

55형 OLED TV 출시

삼성전자가 12일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한 55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신제품(사진)을 국내 출시했다.

신제품은 2025년 삼성 TV의 신규 AI 신기능을 대거 탑재했다. ‘AI 스마트 홈’ 기능을 통해 사용자 생활 패턴, 집안 기기 상태, 날씨 및 실내 온도 등을 분석해 사용자와 집안 환경에 맞는 행동을 제안해준다.

예를 들어 실내 공기 질이 좋지 않을 때 공기청정기 작동을 제안하거나, 에어컨으로 냉방 시 냉방 효율을 위해 블라인드를 단도록 추천해준다.

‘홈 모니터링 기능’도 갖췄서 온디바이스 AI 기반으로 TV의 센서와 카메라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집안 보안 상황에 대한 알람을 제공한다.



TV 리모컨의 AI 버튼을 누르면 ‘클릭 투 서치’ 기능이 작동돼 시청하는 콘텐츠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추천받거나 등장인물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청하는 콘텐츠의 자막을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변환해주는 ‘실시간 번역’ 기능도 갖췄다.

또 ‘AI 모드’를 사용하면 콘텐츠 장르를 인식해 맞춤 화질을 제공하고 최적의 밝기로 조절해준다. 콘텐츠 사운드도 실내 환경과 콘텐츠 특성에 맞춰 최적화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조달청, 상반기 2조 2897억원 신속 집행

조달수수료 최대 20% 감경

광주지방조달청이 2025년 상반기 조달사업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12일 광주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조달청의 조달사업 목표인 4조2613억원 중 약 54% 수준인 2조2897억원을 상반기 내 신속집행할 예정이다. 또 광주조달청은 조달수수료를 1~4월 20%, 5~6월 10%를 각각 줄여주고, 입찰공고 기

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또 선금 지급 한도 역시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여러 계약특례를 적용해 수요기관의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찬경 광주지방조달청장 직무대리는 “광주조달청은 지역 내 수요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차질없이 신속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담양보춘지구 도시개발 본격화

72만1521㎡에 2689세대 건립

전남개발공사가 담양 보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017년 담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 8년만이다.

공사는 12일 “전남도가 담양 보춘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17년 12월 담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9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3년 4개월만에 개발 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다.

담양 보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역민의 주거 복지 향상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담양군

고서면 보춘리 일원 72만1521㎡에 2689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48.39 (+9.34)
↓ 코스닥	745.18 (-4.41)
↑ 금리(국고채 3년)	2.651 (+0.018)
↑ 환율(USD) (오후 5시 55분 기준)	1453.65 (+1.05)